

광주남구보건소 ‘효사랑데이’ 개최

본협회 혈당측정으로 참여



지난 5월 8일(목) 오후 2시 광주 남구가 2006년 9월부터 추진 하고 있는 ‘효사랑데이’ 행사가 주월동 광복춘 푸른길 공원에서 열렸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효사랑 봉사 서비스를 행사하였는데, 신나는 공연과 더불어 구 협력의료기관 및 구 보건소의 내과·한방·치과 진료와 지역 기관 및 봉사단체의 이·미용봉사, 안마, 발마사지 등이 제공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도 ‘효사랑데이’의 취지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참여하여 푸른길 공원을 찾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혈당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격려 하였다. 구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효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 구 단위의 다채로운 어르신 건강관련 행사가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글 / 광정은 기자

제 3회 안전문화걷기대회

본협회 무료 혈당측정으로 당뇨병환자 발굴



지난 4월 26일(일) 오후 1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에서 제 3회 안전문화 선진화 걷기대회가 개최됐다.

(사)한국당뇨협회와 한국애보트(주)는 걷기대회 참가자 300여명의 혈당을 측정, 당뇨병 여부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당뇨병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이 이뤄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글 / 임채영 기자

성동구보건소 개최, 본협회 후원 당노가족 걷기대회



지난 4월 29일 (화) 13시부터 16시까지 성동구보건소에서는 당노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한 서울숲에서 행해진 이 행사는 성동구 주민과 당뇨병환자 및 그 가족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와 자연을 즐기며 걷기대회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사단법인 한국당노협회와 한국애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후원으로 실시된 걷기 전, 후의 혈당측정, 저혈당 사전예방교육, 준비운동 등에도 참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걷기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걷기 전, 후의 혈당측정을 직접 해봄으로써 자신의 당 수치를 파악하고, 걷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날 걷기대회 코스는 서울숲 야외무대를 출발지로 해서 서울숲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 약 2.8km를 걸었다.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비상약품은 물론 구급차, 구급요원도 대기시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뇨병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율성을 좋게 하여 장기적으로 당뇨병의 악화, 진행을 억제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행사 후 지속적인 운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글 / 광정은 기자